

내년 국가예산 6320억원 확보

전주시, 전년보다 11% 증액... 국비 지원 포함 총 1조3657 규모 확보 사업 추진 '탄력'

전주시는 법원·검찰청부지와 전주 종합경기장을 아우르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으로 문화경제를 키워내고,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 낼 '미래먹거리 창출·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생태환경'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성과는 정부의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및 신규사업 억제까지, 4조원 규모의 세수결손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심사 기간 매주 2~3일씩 국회에 상주해온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광수·정운천·정동영 국회의원, 장복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북 권(연고) 국회의원, 안상수 위원장과 서상석 국회의원 등 국회 예결위원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시는 2019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으로 전년도 5691억원 보다 629억원(11%)이 늘어난 6320억원(131개 사업)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나아가 55개 국비지원 사업(730억원)과 복지 등 국비보조금지원사업(28개, 3972억원), 교부세 등을 포함하면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총 1조 3657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조1284억원보다 237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

의 핵심인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중소기업 창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북중소기업연수원 건립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갈 드론 ICT 중주도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드론산업허브지원센터 건립 등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 수 있는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또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독립영화의 집 건립 등 국가예산도 확보하면서 지역발전이 이끌어 갈 추진동력을 장작할 수 있게 됐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36개 사업 476억원(신규 17건 92억원, 계속 19건 384억원) △생태환경 44개 사업 510

억원(신규 19건 162억원, 계속 25건 348억원) △산업경제 65개 사업 2,648억원(신규 21건 173억원, 계속 44건 2,475억원) △주거복지 43개 사업 4,336억원(신규 32건 3,712억원, 계속 11건 624억원) △시설 SOC 26개 사업 3,052억원(신규 13건 3,052억원, 계속 13건 2,891억원) 등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특히 정치권과 전북도, 전주시 직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협치가 빛을 발했다"며 "가까이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삶의 터전을 개선하는 데서부터, 더 나아가 전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세계적인 생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다진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호철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비리' 의혹 검찰, 한전 전북본부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주지검 형사부는 10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한전 전북본부 기획관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허가 및 전력 공급 계약과 관련된 한전 직원들과 업체간 비리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전 전북본부장 등 전직 한전 직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편의 제공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청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10일 전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과정 및 전기 매입 과정 비리에 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증거품을 들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태양광 시설 업자를 구속했다.

회사 주차장 자전거 절취 피의자 경찰에 붙잡혀

회사 주차장에 있던 자전거를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65)는 지난 1일 오후 4시 40분 해 군산시 B모 C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D모씨(28)가 잠시 세워놓은 시가 1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타고 가 절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9일 오후 6시에 피의자를 붙잡았다. /강석훈 기자

편의점 ATM 지갑 현금 훔치다

편의점 ATM기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돈을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24)는 10월 25일 오전 2시 14분 전주 완산구 B모 편의점에서 피해자 D모씨(40)가 금융거래 후, ATM기 위에 두고 간 지갑에서 현금 150만원을 절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9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를 붙잡았다. /강석훈 기자

편의점 담배 절도 피의자 검거

편의점 업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담배를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26)는 전주 완산구 B모 편의점에서 피해자 D모씨(60)가 창고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가 3만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3시에 피의자를 붙잡았다. /강석훈 기자

이향로 진안군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혐의 전면 부인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향로(61) 전북 진안군수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3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전주지검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후 1시 50분께 귀가했다.

앞서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된 것 있으면 벌 받아야 하고 잘못된 것 없으면 검찰에서 잘 밝혀주리라 생각한다"며 "황당한 부분도 많지만 (지금) 제 입장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군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이 일이 검찰에서 잘 밝혀지는 대로 소상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최근 수년간 추석과 설 명절에 유권자 수백 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이번 사



'홍삼 선물세트 살포' 혐의를 받는 이향로 전북 진안군수가 10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출입문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날 이 군수의 자택과 군청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20일 한 제보자가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명절 때마다 거액의 홍삼 선물세트를 군민 500여 명에게 불렀다"며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관위는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석훈 기자

"당신, 남의집 일에 왜 끼어들어?"

가정폭력 신고 받고 출동 경찰관 폭행 40대 붙잡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모씨(41)는 지난 5일 오후 10시 10분

께 전주 덕진구 B모의 한 주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A모씨를 현

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모씨는 아들과 딸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모씨는 "집안일인데 경찰이 끼어들어서 화가 났다. 넘어뜨린 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최우수'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수상받아... 전국 우수사례 소개

전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가장 잘 펼친 최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시는 10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018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사회적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우수사례 실적 등에 대한 종합평가와 '선정위원회' 심의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구축과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펼쳐온 다양한 정책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실제, 시는 올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전주시 공영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합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다. 또한, 전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데 이어 전주동물원 휴게소에 오프라인 플랫폼 '전주점빵'을 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에는 사회적경제 바람과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공감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나아가, 시는 주민중심의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40억(국비 20억, 시비 20억)을 들여 사회혁신과 구 구축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 확산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밖에, 시는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운영 △프로보노 데이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정기적인 컨설팅 △신규매출명회 스텝리워드 펀딩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돕고 있다. /송호철 기자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시민참여 확산 포럼

전주시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자동차에게 빼앗긴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차 없는 사람의 거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도로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라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주 시내 중심도로인 충경로가 계절별·테마별 다양한 문화행사로 채워졌다.

시는 10일 전주시혁신센터 다올마당에서 올해 진행된 3차례의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원도심의 공동화방지 및 지역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차 없는 사람의 거리의 방향성과 시민참여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기조발제자로 초청된 사라 이안나론(Sarah Iannarone, 미국)은 '지속가능한 도시 포틀랜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

들기 위해 노력해온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소영식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총감독이 올해 추진된 총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제와 보고에 이어 김종만 시민행동외 공동대표의 좌장으로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UB소장과 양준화 전주시기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진훈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다올마당 위원장, 정명래 한국농식품진흥회 전북전주시안산지부부장, 소영식 총감독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을 통해 차 없는 사람의 거리가 나아갈 방향과 시민참여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그동안 실시해온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반영 후 2019년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송호철 기자

오염되고 침수된 팔복동 금학천

맑은 물 흐르는 하천 탈바꿈

전주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기원 착공식 2021년까지 국비 등 총 220억원 투입기로

전주시가 팔복동 산업단지 옆에 위치한 금학천을 1년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10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외 의장,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기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다.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팔복예술공장 2단지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 철강명소와사업과 함께 사람을 끌어 모으는 팔복동 발전 3대 사업으로 손꼽힌다.

시는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국비 등 총 220억원을 투입해 노후 공간지역이자 침수지역인 팔복동 철길 옆 금학천을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수생태 환경으로 복원하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호안정비(길이 2.2 km)와 유지용수 확보, 배수시설정비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과거 장마철 집중호우시 주변 주택과 공장건물 등 1,300여동과 농경지 200여ha가 침수피해를 입었던 팔복동 산업단지 주변이 침수피해 걱정 없는 안전한 곳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전주천 금학보에서 하천유지용

수를 유입시킴으로써 평소 유량이 거의 없어 오염됐던 금학천이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정비된다.

금학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하천 피복 등 으로 인한 악취와 미관저해가 심했던 이곳이 수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탈바꿈됨으로써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생태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호철 기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온라인 확대

전주시보건소(소장 송준상)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식품·유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업무가 온라인까지 확대되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그간 검사기관에서만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고 지자체별로 발급절차도 서로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타 지역 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돼오던 온라인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기로 했다. /송호철 기자